

## [보도자료] 작다고 외면받던 중소기업, 쿠팡 PB 만나 고품질 제조사로 업그레이드 매출 10배 성장

2024. 6. 3.



박진성 고품질제조사업단명품화사업단 대표

- 중소기업과 품질개선·상품 연구개발 투자 스마트팩토리 도입으로 공정개선
- 쿠팡의 까다로운 품질관리에 따라 제품력 키우며 매년 30% 성장

2024. 06. 03. 서울 - 쿠팡 PB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제품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를 비롯해 제조 공정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PB 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씨피엘비는 제조사가 우수한 제품 개발에만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유통 및 판로 확대 등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품질 향상을 위해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검품 기준, 이물·해충 관리법, 포장재 파손 예방책 등 전문적인 신선식품 품질관리 노하우도 공유한다. 이렇게 탄생한 PB제품은 고물가 시대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갖춘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누리며 중소 제조사들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씨피엘비가 컨설팅하고 판로를 확대한 중소기업은 지난 4월 기준 550곳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3배 늘었다.

기존 재래식 생산 방식을 벗어나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곰소천년의젓갈영어조합법인(곰소천년의젓갈)'은 품질 및 생산력 개선으로 매년 새로운 성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북 부안구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 기업 곰소천년의젓갈은 2020년 PB 납품을 시작하고 매년 30% 이상 성장하며 18년 연매출 5억원에서 23년 52억원으로 10배 넘게 성장했다. 고용도 4명에서 14명으로 크게 늘었다. 박진성 곰소천년의젓갈 대표는 "쿠팡과 거래를 시작하고 스마트팩토리 등 설비를 도입하는 등 상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투자하고 있다"며 "쿠팡 PB 상품을 제조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았다"고 비결을 밝혔다.



자동회전실린기에서 작업하고 있는 곰소천년의젓갈영어조합법인 직원

곰소천년의젓갈은 할아버지부터 3대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기업 납품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쿠팡 PB 상품 제조를 계기로 그동안 납품이 어려웠던 대기업에서 줄줄이 "우리도 납품해 줄 수 있겠냐"는 러브콜을 받았다. 박진성 조합법인 대표는 "쿠팡 납품을 계기로 사업장의 품질과 생산력이 크게 뛰었고, 전국의 쿠팡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했다.

경기 광주의 슈퍼푸드 전문업체 '애드웰스'도 씨피엘비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제품력을 향상시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2022년 씨피엘비와 거래를 시작한 애드웰스는 이듬해 매출 6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매출은 10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풍승 애드웰스 대표는 “마케팅, 판매, CS까지 쿠팡이 도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제품력을 키우는데만 회사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며 “CPLB에서 주기적으로 품질 검사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PB 상품 특성상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아 원물과 품질 관리에 투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 광주에서 벽지, 매트 제조하는 ‘큐원’도 쿠팡 PB 상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개발과 판로 확장에 성공했다. 기존에는 인테리어 벽지만 취급했지만 큐원이 제조한 쿠팡 PB 상품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으면서 캠핑매트, 캐릭터매트 등으로 제조 상품을 확대했다.

이창훈 큐원 전무는 “이전에는 오프라인이나 해외 수출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전쟁, 중국산 저가 제품의 영향으로 매출 유지가 어려웠다”며 “쿠팡 PB 납품을 시작으로 매출이 늘면서 상품군도 확대하고 비즈니스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큐원의 2023년 전체 매출 120억 중 40억이 쿠팡 PB 상품 제조에서 발생했다.

쿠팡의 PB사업 성장은 중소 제조사들의 품질과 상품개발에 대한 오랜 투자가 기반이다. 쿠팡은 중소기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PB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중소 제조사들의 생산과 품질 시스템, 고품질의 PB상품 개발 등에 투자하고,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의 PB 제품을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는 철학을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까다로운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준 파트너사들 덕분에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우수한 중소 제조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